

## 4. 브라질, 지역통합과 국제정세 변화

톨루 비제바니/아를두 하만지니 Jr.\*

---

본 글의 목적은 남미, 특히 Mercosur 지역통합과정에서 브라질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 정치와 경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브라질이 세계무대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관련하여, 엘리트들의 인식에 나타난 국제정세의 역동적인 변화와 그 진행과정은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이다. 통합에 대한 한 국가의 입장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역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이 이해관계는 다른 국제 분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조건들을 확보하려는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다. 세계무대의 변화가 브라질의 입장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에서 보면, 동 국가가 Mercosur와 관련하여 취했던 입장의 지속성과 변화의 요소들이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과 경제 위기가 브라질이 추구하는 세계 속에서의 역할 강화라는 흐름을 바꿔놓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Integración/ Sistema internacional/ Comercio/ Mercosur/ Brasil;  
통합/ 국제체제/ 무역/ 메르코수르/ 브라질]

---

### 서 론

본 글의 목적은 남미, 특히 Mercosur 지역통합과정과 관련, 브라질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 정치와 경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다.

---

\* Tullo Vigevani: 상파울루주립대학(Unesp, Universidad Estadual Paulista) 교수이자 현대문화연구소(Cedec, Centro de Estudios de Cultura Contemporânea)의 연구원. Haroldo Ramanzini Jr.: 상파울루대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현대문화연구소의 연구원.

1985년 이래 남미 남부지역 통합은 자유주의 체제라는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전지상주의적인 시도에서부터 개방적 지역주의 형태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의 평등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호주의로 회귀함이 없이 발전지상주의적인 시도로 나아가면서 외부의 서로 다른 환경과 공존해왔다. 본 글에서는 브라질 정부, 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주체들의 입장에 국제사회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 하에 Mercosur와 지역통합에 대한 이들의 입장에서 드러난 불변적인 요소와 변화 요소들의 실체를 분석할 것이다. 즉, 우리는 1980~1988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들 엘리트 계층의 태도가 세계 정치 및 경제 무대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변화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가정에서 출발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알폰신과 브라질의 사르네이 정부가 존재했던 기간, 특히 1985년부터 1988년 사이에 대하여 까마르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브라질 기업인들의 입장을 말하자면, 이전 시대의 무역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선진국 경제, 특히 미국 시장에 자국 상품이 보다 많이 침투하는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브라질 기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자세를 보였다(Camargo, 2000: 160). 결국 2000년대의 화두는 길고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에 대한 한 국가의 입장은 과거나 미래에도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이 이해관계 역시, 다른 국제 분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조건들을 확보하려는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떤 면에서 Mercosur에 대한 브라질의 애매모호한 자세들 중 몇 가지는, 헤게모니 장악시도와 시스템의 와해 움직임 사이의 긴장이 두드러진, 탈냉전 세계의 딜레마 및 모순들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과대팽창이라는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의 자원들이 자신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장해주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브라질의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 시도는, 비록 서로 다른 전략들로 추진되고는 있어도, 관련지역과 다자간

정치 및 경제 포럼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는, 한편으로 자국의 취약성이 안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려는 시도 사이에 간혀있다. 삐네이루(Pinheiro)는 이것을 ‘실용적인 제도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양면 추구는 모든 국가에게 공통되는 것으로, 브라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자세로, 서로 다른 글로벌 판도, 그리고/또는 지역 판도에 대한 자국의 입장표명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1990년대 이전에는 예상 불가능했던 국제체제상의 변화들이 지역 통합에 대한 브라질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그 변화들 가운데 몇 가지를 지목하면 다음과 같다: 1) 21세기 초,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과정, 2) 중국의 부상 여파, 3) 2003년 이래, 최소한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작금의 금융 위기까지의 농산품 가격 상승, 4) 세계 발전의 축들의 재조정, 특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할, 5) 1990년까지는 브라질에 중요하지 않았던 나라들과의 무역 증가, 6) 브라질이 다자간 경제 협상에 부여한 역할 등, 이것들은 2008년 위기 직후를 포함하여 G20에 대한 브라질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탈냉전 세계에서 브라질의 국제 활동은 그 당시까지처럼 양극화된 국제체제의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브라질의 국제 활동은 현 국제무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 중이며, 브라질의 취약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회를 강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떻게 Mercosur와 남미국가연합(Unasur)의 확대라는 아이디어로 발전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실행 하면서, 브라질은 1990년대 초에, 특히 지역 블록 형성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활동을 전개해왔다. Mercosur는 창설 이래 브라질의 국제무대 진입이라는 전략의 기초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겠지만, 통합의 구조적인 필요성과 브라질 사회와 정부의 주요 주체가 취하고 있는 자세와 입장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서로 다른 동기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발전지상주의와 관련된 부문과 자유주의 전통에 관련된 부문들 사이에 일종의 합일점이 존재하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자국이 미래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한할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지역 통합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구축된 것처럼, Mercosur의 구조는 브라질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통합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WTO나, 미국과 EU, 그리고 G20과의 관계에 있어서 브라질의 활동에, 가능한 것 혹은 ‘기다린’ 자유로 간주되는, 지지를 보내기에 적합한 것이다. 그것은 또 브라질에게 보다 큰 제도화라는 수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관세통합 혹은 공동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위축된 분위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게끔 해줄 것이다. 지역 통합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국제경제 지형도의 변화이다.

Mercosur와 남미 무역, 그리고 지역통합의 상대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어려움들은 -비록 대조적이기는 하나 강력한 통합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외부 무대에는 브라질 정부와 엘리트계층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존재한다.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경제의 성장이었으

며, 다른 하나는 이 기간 동안 세계 경제 속에서의 중국이 맡게 된 새로운 역할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브라질의 기업들과 정부 내 주요 그룹들은 자신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에 대하여 방향설정을 다시 하게 되었다. 통합의 정치적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치적 의미는 비례적으로 축소되었다. 21세기 초 몇 해 동안 확인된 금융시스템에서의 유동자산 경우처럼, 원유와 가스를 포함한 1차산품들 (commodities)의 가격 상승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동 지역 다른 국가들의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은 비록 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동 지역의 상호보완성 노력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적정한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중요했다.

2008년에 시작된 핵심국가들의 경기침체는 바로 동 국가들의 시장 위축덕분에 남미 통합에 호의적인 새 국면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브라질은 국제 금융과 경제 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협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라질은 거대한 신흥국가들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Mercosur와 동 지역 국가들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27일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Mercosur 회원국 경제, 외교장관, 중앙은행 총재 확대회의에서는 아무런 공동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셀수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동 모임으로부터 공동 선언문을 기대했지만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공동방안이 결코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Clarín, 2008년 10월 27일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관계 문제는 현재에도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즉, 양국의 생산 구조가 서로의 상호보완적

인 면을 추구하는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국에서 1차 산품이 차지하는 비중과 양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국제무대 진입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역할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통합의 객관적인 필요성과 생산 통합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 일치를 추구하는 경향들 때문에 양국은 공동 성장이라는 문제를 지역관계의 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남미 남부와 남미에서 시장이 빈곤 극복의 수단이 되리라는 근본주의적인 신념의 환상에서 깨어남으로써, 그러한 신념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신념과 관련된 국제체제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재 활성화 하고자 하는 동 지역 국가들의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에게 긴급 상황의 해결을 위한 길이 열렸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를 시작으로 전개된 시스템의 위기는 새로운 공동 인식, 즉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주었다. 지역통합 계획은 시장이 실현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요구한다. 앞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지역통합의 최근 역사,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의 통합의 역사는 각국이 아직은 통합보다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파이뿌 수력발전소와 볼리비아 가스 등 공동 에너지원의 사용과 그와 관련된 논쟁들 그리고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로 모습을 드러낸 셀룰로오즈 생산 기업인 Botnia사를 둘러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양국 분쟁 등이 그러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과 경제 위기는 지역통합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에 대한 어떤 확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협력을 목표로 하는 행동들이 해당 국가들의 구조적인 무기력함을 중화하거나 또는 국내 지역의 역동성을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취급토록 하

는 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빈국들 간의 지역통합 경우에는 어떤 지역 블록에 사회적인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보상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변화하는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처럼- 일반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통합 정책 심화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8) 시절에 강화된 미국의 일방주의로 남미 남부지역의 통합은 강화되지 못했다. 브라질의 경우, 까르도주 정부와 룰라 정부는 -특히, 룰라 정부의 경우는- 신흥대국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강화 정책을 취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곧 분석하겠지만, 중국의 경우, 양국(브라질과 중국) 간에 존재하는 무역 잠재력이 큰 의미를 지녔다.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남아공과 관련해서도 경제와 무역 협력 추구하고 함께 정치 그 자체의 변화양상이 돌보였다. 또한, EU, 일본,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방향으로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다. 관세통합의 문제를 포함하여 브라질 행동의 필수불가결한 구심점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ercosur는 다자주의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구현하는 데 적절히 동원되지 못했다. UN, WTO, G20과 같은 국제 포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지만, 브라질은 국가의 능력이 일방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이며 적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Mercosur와 관련한 브라질 입장의 연속성과 변화

21세기 브라질의 국제무대 진입은 아직 진행 중인 심도 깊은 변화들로 인하여 그 매개변수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은 모든 국가에 똑같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미국의 중추적 위치도 의문시되고 있으며(UNESP, Unicamp, PUC/SP,

Cedec, 2006), 그러한 상황은 브라질 정치, 특히 Mercosur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단락에서는 브라질의 입장을 좌지우지한 국내외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Mercosur의 발전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동 블록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른바 “분명한 양극화”, 즉 냉전(1946~1989)으로 지칭되는 기간의 상당부분 동안 브라질의 대외입장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제도나 체계의 공고화에 대해 다분히 저항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기존 권력의 위계질서를 고착시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이러한 입장을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 한명은 아라우주 까스뜨루(Araújo Castro, 1982)였다. 외채 위기와 고인플레이, 그리고 경제침체가 불거졌던 1980년대를 시작으로 브라질의 경제발전 모델을 재고(再考)한다는 의미에서 브라질 엘리트계층의 일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브라질이 중요한 국제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힘을 얻었다.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브라질의 대외정책 입안자들이 찾아낸 길은 국제기관과 국제체제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지역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었다.

몇몇 외교관과 지식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세계가 양극화된 기간 동안 브라질의 외교정책이 취했던 거리두기를 통한 자율성 확보 개념과는 달리, 참여를 통한 자율성 확보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Fonseca Júnior, 1988).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실제로는 오늘날까지— 남미는 강대국들에게, 특히 미국에게 전략적인 중요성이 덜한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Ayerbe, 2002). 브라질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관료층의 일부 엘리트들과 기업 측 인사 몇몇에게는 아르헨티나와의 통합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녔



다. 1988년 이래 브라질 경제 관료들에게 통합은 무역 개방과 자유화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외교관들에게는 국제무대에서 힘을 더할 수 있는 바탕으로 여겨졌다. 역내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국제상황에서 공동으로 움직인다면, 각국의 상대적인 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존재했다.

브라질 외교정책의 근간을 분석하는 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성을 지닌다. 자율성과 보편성이 그것으로 이 개념들은 브라질의 외부세계와의 대화 전략과 방향의 일부를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역사적 전통과 수사학은 사회적·역사적으로 구축된 그러한 개념들의 재확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치주체들의 행위를 엿보게 하는 그들의 주관적인 인식 속에도 스며있다. 이것은 또 브라질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과 지속성이라는 그들의 수사학을 입증하는 그들의 상황 인식에도 나타나 있다.

브라질의 몇몇 대외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속에서 보편성이라는 개념은 자국의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라페르(Lafer, 2004)에 따르면, 그 개념은 국가와 사회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역사적, 정치적 유사성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국의 대외 관계를 최대한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대변한다. 또한, 그것은 외부세계와의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고 확대, 팽창시키려는 노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무역의 관점에서 볼 때, 보편주의 개념은 일부 특정 지역과의 무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트레이더라는 용어로 요약되기도 한다(Barbosa e César, 19 대: 307). 자율성의 개념은 이미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국제체제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선택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말하는 것이다(Mariano, 2007). 멜루의 관점에서 보면(Mello, 2000), 브라질 대외 정책이 보여 온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지속성 -자율성과 보편성-

이 지역 정치에서도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의 대외활동에 방향설정 역할을 하는 개념들의 의미가 국내외의 변화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접근이 시도되던 시기에 아르헨티나와의 지역통합과 동맹의 개념, 그리고 보편주의와 자율성의 가치 보존이라는 것 사이에 중첩되는 점들이 있었다. 지역주의가 위축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의 국제사회 진입이라는 보편주의적 패러다임은 강화될 것이다. 냉전시대 종말의 결과로 파생될 수 있는 고립 위험에 대한 인식(Moreira, 1989)과 동 국가들의 내적인 무능력이 그들의 대외적인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의 문제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통합과정뿐만 아니라 추후 그 통합과정에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오누키(Onuki, 1996)는 Mercosur의 창설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미 남부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와의 통합 초기(1985년 11월 이과수 선언, 1986년 7월 통합과 경제협력 프로그램[PICE],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24가지의 외교문서들, 1988년 통합과 협력 그리고 발전에 관한 조약)는 기업들의 라이벌 의식을 자극하여 현대화와 세계경제체제로의 경쟁적인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발전중심주의적인 논리에 부합하였다. 하지만 여러 주변국에서 자유화 개혁 움직임이 붐을 이루던 무렵, 브라질의 꼴로르 지 멜루 정부와 아르헨티나의 까를로스 메넴 정부를 시작으로 국내시장 개방이라는 테마가 주를 이룬 반면에, 다른 중요 사항들, 특히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등 통합 과정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합이라는 범주에서 발전이라는 주제가 중요성을 잃어간 반면에,

무역거래라는 테마가 점차 중요성을 띄기 시작하였다(Mariano, 2000).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000년부터 동 지역 국가들에게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모델들이 약화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의 금융과 경제 위기부터는 오히려 가속화되면서 그러한 경향에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힘들기는 하겠지만, 통합이 발전에 유리하다는 관점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작금의 위기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제7차 Mercosur 이사회 비상회의에서 브라질의 아모링 장관은 “위기의 해결책은 보다 많은 통합, 보다 많은 무역, 보다 적은 보조금 지급과 보다 적은 (시장)왜곡”이라고 천명했다(2008년 10월 28일자 브라질의 *Gazeta Mercantil*).

1999년 헤알화의 평가절하와 2001년에 이은 아르헨티나의 경기침체로 Mercosur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전개 양상이 명확치 않은 어떤 위기를 보여주었다. 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찾기 위해서는 연이은 무역 분쟁과 정치적인 알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적 요소들 외에도, 그리고 지역통합의 역할을 보장하여야 할 역내의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사실 외에도, 관련국들의 경제와, 국가와 사회에 뿌리내린 가치들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한 무역통상 문제들과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둘러싸고 상당한 불화가 있었던 1996년과 1997년을 시작으로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과 전국산업연맹(CNI), 농업비즈니스 대표기관들,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Mercosur가 브라질의 보편주의적인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상존해왔다. 그 무렵에,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상의 진전,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새로운 협상 개시를 위한 협상들, 그리고 이후에 강화된 BRICs 역할에 대한 논의 시작 등이 통합의 역할 변화에 여러 기여를 했다. 이러한 협상들과 방향모색은 Mercosur를 반드시 약화시키지만은 않

을 것이라고 했으나, 문제는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브라질 엘리트층이 통합의 개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브라질 사회의 일부에서는 Mercosur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이 기구의 심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따금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11월, 상파울루주산업연맹(Fiesp), 브라질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전국 전기전자 제품제조사협회(Eletros), 브라질무역협회(AEB) 등 주요 산업 단체와 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모인 회의에서 동 지역 블록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임에서의 토론도 Mercosur와 관련하여 한걸음 물러선 방어적 사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관세통합에 대하여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동 모임에 참석한 기업인들에 의하면, Mercosur는 국제협상에서 브라질의 발을 묶는 쇠고랑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과 EU와의 양자협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2004년 11월 16일 자 *Valor Econômico*). 이 기업인들의 우려로부터 나온 분석들은 브라질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의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뿐만 아니라, Mercosur가 브라질의 대외정책상, 그리고 국제 경제와 무역 전략상 하나의 기준으로써 갖는 역할이 줄어들려는 경향을 확인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분석 결과는 Mercosur와 남미통합이 수행할 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반복,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브라질의 보다 큰 대외적 역동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08년까지 최소한 중심 국가들에 대한 우려, 다양화된 국가경제에 대한 우려, 첨단 상품에 대한 강한 수입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원자재와 농산품에까지 미치는 강한 수입력에 대한 우려 등은 보편성과 글로벌 무역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증가할 것이다. 폰세까와 마르코니니(2006: 87)는 “브라질 관련자들에게 점점 더 눈

란이 되고 있는 관세동맹 체제를 가까운 미래에 없애고, Mercosur를 자유 무역지대로 탈바꿈시킬 현실주의적인 과감성을 지니는 것이 매우 권고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보다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인 경제적 차원의 대규모 이익 가능성이 엿보이자 이전에도 결코 폐기된 적이 없었던 자율성과 보편성이라는 테마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과거와는 달리 Mercosur에 국한된 의미에서 거론되고 있다. 1980년대 하반기와 1990년대 초에 주요 주체들에게는 지역통합과 아르헨티나와의 동맹, 그리고 자율성과 보편성의 보존이라는 세 가지 테마가 상당한 중첩성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에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략적이라고 간주되는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중첩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오래되었거나 하였지만, 논점들이 최소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으로 재등장하였다. 즉, 지역 시장의 작은 규모, 해당 국가들의 불안정성, 부국들(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매력, 브라질에 대한 보편적인 불신감 확산이다. 우리가 강조하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정부에게 국제체제 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필요성이었다. EU와의 경우는 이 기구가 Mercosur를 하나의 블록으로 간주하여 협상할 것이며, 각 국가와의 개별적인 협상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써 EU와의 관계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2007년 7월 EU와 브라질 사이에 맺어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브라질의 EU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브라질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Mercosur는 분명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전개되는데,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Onuki, 1996). 보편주의의 힘이 지속되고 있는 브라

질의 경우에 국제관계에서 최우선 순위로 올라있는 Mercosur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통합의 명백한 특별성이 없으며, 통합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다. Mercosur가 탄생되던 순간에 각국 정부는 이를 분명히 했다. 즉, “아순시온 조약에 서명하면서 4개국 대통령은 통합과정의 심화가 자국에게 세계무대로의 보다 치열한 경쟁적 진입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경제적 공간이 공고화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서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자국의 경제에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Ministério, 1999: 279). 다시 말하면, 동 블록은 국제무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며, 애초부터 정체성의 문제는 핵심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Mercosur가 보다 제도화되더라도 그것은 엘리트계층과 경제, 사회, 지역 그룹과 정치인들 상당수의 이해관계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즉, 그들에게는 동 블록의 현 구조가 자신들의 필요성과 부합한다는 뜻이다. Haas(1964)는 관료와 정부 엘리트들로 하여금 지역 제도의 구축과 확대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들의 결과물로 탄생할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역내 무역 규모가 1985년에 약 16억 달러에서 1997년 19억 달러로 확대되던 시기에 브라질의 경우, 자국의 총 무역 규모에서 동 지역 내의 무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5%로 상승하였는데 (CEPAL, 2003), 이 기간 동안 Mercosur는 동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켰으며, 이들은 동 블록의 유용성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이미 정치, 경제적인 환상에서 깨어나는 조짐이 나타났고, 1999년 브라질 화폐의 평가절하와 아르헨티나의 비슷한 위기 상황이 통합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키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적된 여러 징후의 가속화에 일조했다. 그 징후들은 양국의 상호보완성과 시장규모의 한계에서 이미 유래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Mercosur, 그리고 남미와 브라질의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 개념은 1990년대 초부터 제도화된 어떤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장애물과는 상관이 없는 특정한 국가 행위의 잠재력을 꾸준히 재발굴하는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 알메이다(1993: 138)는 “상식적으로 볼 때, 완전한 관세통합이 작동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국한된 어떤 초국가성의 수립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 하에서도, 수년간 유럽공동체(EC) 내에 형성되었던 거대한 관료주의를 Mercosur 내에서 반복, 재생할 이유가 없으며, 그 관료주의는 유럽 회원국들의 일부 경쟁력을 앗아간 바 있다”라고 말한다.

특정 시기에 국제체제의 역할에 따라 다양했던 브라질 엘리트들의 주변배우적이며 보편주의적인 염원은 제한적 합의나 조건 없이 국제무대에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데 자유로워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보편주의 개념이 갖는 비중처럼, 일부 엘리트들의 세계관과 행동들은 통합의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 동 블록을 보다 심화시키는 것이 주권과 자율성의 제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브라질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이것은 국가와 사회의 행동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그 결과, Mercosur에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브라질의 대외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혹은 고대하는 자율성과 보편주의적 행동에 반대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현들이 거부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대외정책의 보편주의적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이것은 브라질의 국제사회 진입에 대한 국제체제의 허용가능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참여를 통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룰라 정부에 들어와 다양화를 통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의 국제사회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국제기구, 아이티의 경우에서처럼 적극적인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WTO와 도하라운드와 G20 회원국으로서 다자간 모임의 중재 활동, IBSA(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룹)과 BRICs 그룹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Mercosur는 고려 대상에서 결코 제외된 적이 없었지만, 관세통합 관계국들과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 Mercosur를 강화하고자 했던 정책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 브라질 대외정책의 일관된 면은 자국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Mercosur를 활용하면서 동 블록에서 최소한의 응집력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Mariano, 2007). 똑같은 방식으로 남미 통합 전략의 기초로 Mercosur를 활용하는 것 역시 동 지역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에 중요한 요소이며, 바로 이 점에서 새로이 회원국의 가입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부 간 제도적 장치의 유지 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다. 남미 통합 노력은 이미 이따마르 프랑꾸(Itamar Franco, 1992~1994)와 까르도주(1995~2002)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며, 룰라 정부에 들어와 더욱 공고화되었다. 한편으로, 이것은 브라질 내에 남미를 아우르려는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보완적인 해결책으로 비취질지언정, 내포하고 있을 결과들과 약속들을 고려하면서 남미 남부지역에 보다 심도 있는 관심과 공동 시장에 필요한 선택적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미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브라질 역대 정부의 입장은 정부 내외에서 엘리트층의 평균 기대치와 일치하는 듯하다. 그러한 면에서 브라질 역대정부의 입장은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역대 정부에서 취해진 주류 입장 과도 일치한다.



## Mercosur의 입장에서 본 국제사회의 변화와 그 결과

1990년대 초 이후 브라질 대외정책 입안자들과 집행자들 사이에서는 국제체제 상에서 브라질 활동 폭의 유지 여부란, 무엇보다도 브라질이 국제사회에 두각을 나타낼 능력과 국제적인 의제의 주요 테마들에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에 달린 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유주의 측뿐만 아니라 민족적·발전중심주의도 포괄한다(Barbosa, 1996; Cervo, 2006). 경제적·군사적 재원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브라질의 대외 활동과 국제적인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포럼 등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바를 제시하는 능력이란, 단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다자간 포럼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Narlikar, 2003). 그러한 문맥에서 볼 때, 국제체제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브라질 대외정책의 보편적 특성을 강화시켜 줄 협력관계나 연합전선들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셀수 아모링 외무장관은 톨라대통령 1기 정부(2003~2006)의 국제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영향력이 유효했다고 말한다. “거짓 겸손을 빼고 말하건대, 브라질이 WTO협상의 역학을 바꿔놓았다. 브라질은 혼자가 아니었다. 브라질은 G20을 리더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 여타 다른 나라들이 브라질을 찾고 있다. 거의 아부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브라질 일간지 *Gazeta Mercantil*, 2006년 10월 19일).

미국의 움직임처럼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협상 시 브라질에 부여된 비중은 최소한 1990년대 초 이후 남반구 통합 논의를 심화시켰고, 동지역(특히 Mercosur)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발효시켰다는 의미에서 남미 남부지역 블록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을 결정지은 중요한 외적 요인이었다. 멜루(Mello, 2000)의 말대로 미주 통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미

국의 목적은 Mercosur에 대한 브라질의 약속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약속은 통합의 심화를 지탱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상의 무기한 연기를 목적으로 했던 행동과 우연의 일치를 보인, 2005년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에서 개최된 미주 정상회담에서 Mercosur는 미국에 대하여 가격을 예누리하려는 수단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를 포함하여 WTO협상에서 있었던 정책 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개념상의 의견 불일치는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힘든 시기에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정부의 결정에 종종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보세요. 당신이 EU든 남미든 혹은 아시아든 통합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떤 순간에는 자국 상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알력의 상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차이의 상황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즉, 경제적 차이와 산업 잠재력의 차이 말입니다.”(Clarín, 2008년 9월 7일)

지역통합과 Mercosur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커다란 국제적인 변화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로 폭넓게 확인되었듯이 미국의 경제력이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 국가들과 지역들이 차지하는 의미가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미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1990년대 초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충격의 요인은 중국과 아시아의 놀라운 성장이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관계가 밀접해지던 1985년 이래 혹은 Mercosur가 창설된 1991년 이래 국제 정치와 경제의 지형도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월츠(Waltz, 2000: 30, 32)는 "이론적으로 볼 때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구체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단극성(單極性)으로부터 다극성(多極性)으로의 피할 수 없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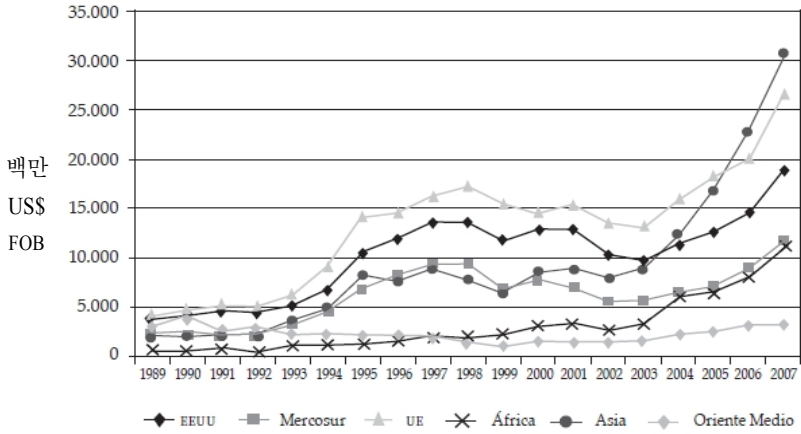
임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인한다.

브라질의 해외무역 분포도에 나타난 관련 변화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이외에 인도, 러시아, 남아공화국 등의 역할이 말해주는 것처럼 중심국이 아닌 국가들에 집중된 발전으로 2000년대 세계열강의 재편성 (Velasco e Cruz, 2007)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브라질 정부와 엘리트들의 국제사회 진입 계획에서 지역통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데 일조하였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적-발전중심주의 관점에서도 Mercosur는 브라질 정책의 기초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관심의 초점이 재조정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의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기마랑이스(2006: 275)에 따르면, 남미가 그저 자신과 다른 정치적 혹은 경제적 중심축의 하위 지역으로 전략하지 말고, 그 중심축들 가운데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다축적(多軸的)인 세계체계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방향의 재설정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 가운데 하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브라질의 대외무역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것인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198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역내 무역추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1985년에 브라질 전체 무역의 3.86%를 차지하던 Mercosur 회원국들로의 수출이 1998년에는 전체 무역의 17.37%를 차지한 것이다(CEPAL, 2003).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확실한 중요성 외에도 브라질의 역내 무역의 질이 양호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보다 큰 총액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 출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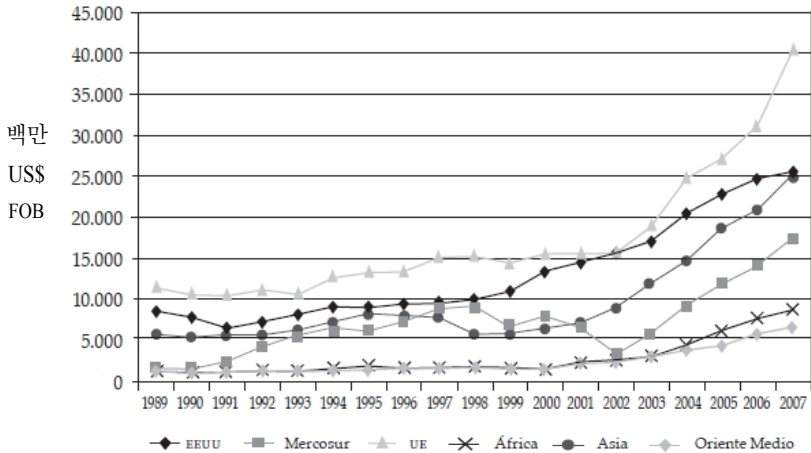
아래의 도표들(1, 2, 3)은 1989에서 2007년 사이 브라질의 해외무역 구조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에는 동 기간의 수출입 변화와 수치 규모가 나타나 있다.

<도표 1> 수입대상국별 혹은 블록별 브라질의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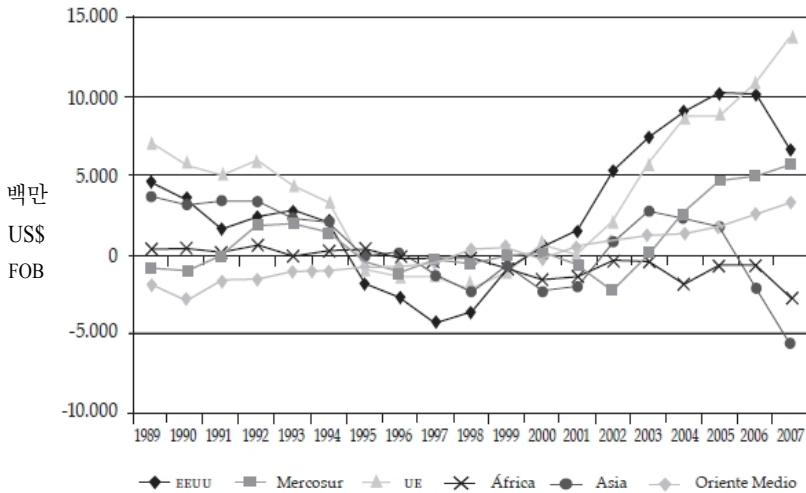
출처: 브라질 중앙은행, 2008.

<도표 2> 수출대상국별 혹은 블록별 브라질의 해외 수출현황



출처: 브라질 중앙은행, 2008.

<도표 3> 브라질의 무역흑자 대비 국가별 혹은 블록별 무역흑자



출처: 브라질 중앙은행, 2008.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표 1, 2), 중국과 인도와의 거래처럼 종합적이 아닌 개별적인 방식으로 브라질의 대(對) Mercosur 회원국과의 수출입 변화율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도 흥미를 끈다. 인도의 경우, 양국(브라질-인도)간의 관계 긴밀화 노력과 G20, 그리고 IBSA에서의 공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의 교역은 정반대로 브라질의 국제 경제관계의 프로필을 바꿔놓을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1> 브라질: 수출(총 수출 대비 %)

연도 1989-2007	아르헨티 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중국	인도
1989	2.10%	0.94%	0.97%	1.83%	0.58%
1990	2.05%	1.21%	0.94%	1.22%	0.53%
1991	4.67%	1.57%	1.07%	0.72%	0.52%
1992	8.49%	1.52%	1.44%	1.29%	0.42%
1993	9.49%	2.47%	2.01%	2.02%	0.32%
1994	9.50%	2.42%	1.68%	1.89%	1.43%
1995	8.69%	2.80%	1.75%	2.59%	0.69%
1996	10.83%	2.77%	1.70%	2.33%	0.39%
1997	12.77%	2.65%	1.64%	2.05%	0.31%
1998	13.20%	2.44%	1.72%	1.77%	0.28%
1999	11.17%	1.55%	1.39%	1.41%	0.65%
2000	11.32%	1.51%	1.22%	1.97%	0.39%
2001	8.60%	1.24%	1.11%	3.27%	0.49%
2002	3.89%	0.93%	0.68%	4.18%	1.08%
2003	6.25%	0.97%	0.56%	6.20%	0.76%
2004	7.66%	0.91%	0.70%	5.64%	0.68%
2005	8.39%	0.81%	0.72%	5.78%	0.96%
2006	8.52%	0.90%	0.73%	6.10%	0.68%
2007	8.97%	1.03%	0.80%	6.69%	0.60%

출처: 브라질 중앙은행 2008

<표 2> 브라질: 수입(총 수입 대비 %)

연도 1989-2007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중국	인도
1989	6.78	1.96	3.25	0.70	0.19
1990	6.62	1.56	2.83	0.83	0.08
1991	13.88	2.54	4.57	1.40	0.23
1992	8.42	0.95	1.47	0.57	0.14
1993	10.76	1.09	1.53	1.21	0.36
1994	11.07	1.07	1.72	1.40	0.27
1995	11.19	1.03	1.48	2.08	0.34
1996	12.76	1.04	1.77	2.12	0.35
1997	13.29	0.87	1.62	1.95	0.36
1998	13.90	0.61	1.81	1.79	0.37
1999	11.81	0.53	1.31	1.76	0.35
2000	12.27	0.63	1.08	2.19	0.49
2001	11.17	0.54	0.91	2.39	0.98
2002	10.04	0.81	1.03	3.29	1.21
2003	9.68	0.98	1.11	4.45	1.01
2004	8.86	0.47	0.83	5.91	0.88
2005	8.48	0.43	0.67	7.27	1.63
2006	8.82	0.32	0.68	8.75	1.61
2007	8.63	0.36	0.65	10.46	1.79

출처: 브라질 중앙은행 2008

브라질의 국제사회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말하자면, 자본과 기술, 교환가치, 문화, 그리고 권력관계의 이동을 들 수 있다. 특히, 무역은 아주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며, 브라질 해외무역 대상국들이 어느 정도 다변화된 것은 브라질 대외정책의 보편주의적 논점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다변화는 1차 상품이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브라질의 총 무역규모는 2,821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요 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대미 무역 규모는 브라질 전체 무역 규모의 16%에 이르는 44억 달러에 달했다. 두 번째 상대국은 아르헨티나로서 전체 무역 규모의 9%에 달하는 248억불을 기록했고,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브라질 총 무역 규모의 8%에 달하는 233억불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브라질의 교역 상대국들이 이들 나라 중 어디에도 집중되지 않은 채 매우 다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간의 무역 상황을 보면, <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입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도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89년에서 2007년 사이에 브라질의 총 수입액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0.70%에서 10.46%로 증가하였다. <도표 3>에서는 특히 EU, 미국, Mercosur와의 교역 순으로 무역흑자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위기 이후 회복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1998년의 성과를 더 이상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표 1, 2>에서 볼 수 있듯이, Mercosur와의 교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강조했다듯이, 총액이 가장 큰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브라질 무역수지 흑자에 동 지역이 제공하는 공헌도는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브라질의 해외무역에서 동 지역 블록의 시장점유율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이래 세계 경제의 성장 -특히, 중국과 아시아의 역할이 커진 점-, 브라질이 WTO 협상을 강조한 점, 그리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동 기구의 활용과 2003년 이후 1차 산품 가격의 상승 등 이 모든 요소들이 브라질 정부 내 주요 그룹과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초점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2008년 국제 금융·경제 위기에 대한 브라질의 대응자세는, 다극적 세계체계의 모색과 일방주의의 종식 강조가, 자국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다양한 정치·경제·지역적·다자간 포럼 등에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G20에서 브라질의 활발한 활동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인접국들과의 조정에서 오는 어려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G20 정상회담 말미에 톨라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G20에 속하게 된 나라들의 정치력과 그들이 의미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오늘 이 포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경제에 대한 결정을 취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브라질 경제일간지 *Gazeta Mercantil*, 2008년 11월 17일자). 그의 말을 분석해보면, 국제협상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기대가 분명해진다.

그 기대란, 입장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자간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지역포럼에서도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대외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보편주의의 강조가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부께르끼(2007)는 무역과 금융 동맹이 반드시 정치적인 동맹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 만큼, 냉전에서 신세계질서로의 이동에서 정치 군사적인 우월성과 경제의 경쟁력 사이의 괴리가 대외정책의 옵션들을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있다고 분석한다. Mercosur와 Unasur, 그리고 회원국들과의 관계는 일방주의의 종말로 강화되고 다자주의의 공고화에 의해 강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의 정책은 지역에

대한 강한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히 Mercosur와 관련한 지역통합의 심화가 세계무대의 상황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 세계무대의 상황은 지역통합의 심화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지역통합에 대한 브라질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반 가이드라인과 인식의 문제들이 이해가 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모든 역내 국가에게 무역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델(2008)에 따르면, 남미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교역의 비중이 국가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바꿔놓고 있으며, 이것은 브라질의 해외무역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의 전환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타 역내 국가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레온-만리케스 (Leon-Manríquez, 2006)는 이들 모든 국가가 기대치를 높게 잡음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위한 옵션을 중국에서 찾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제관계 형태가 일종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바델(Vadell, 2008)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형태의 생산 전문화가 공고히 되는 위험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한 위험들은 세계경제의 성장국면 - 특히, 1차 상품 획득의 엄청난 필요성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 국면 - 에서뿐만 아니라, 2008년 이래 표면화되고 있듯이, EU와 미국의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드는 국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세계경제체계의 경우, 브라질 신발산업연맹(Abicalçados), 브라질가구산업연맹(Abimóvel), 브라질의류산업연맹(Sindivestuário)과 같은 브라질의 주요 기업부문들은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와 이들 나라에서의 수요 하락으로 인해 자국의 상품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움직임에 우려하고 있다(브라질 경제 일간지 *Gazeta Mercantil* 2008년 11월21일자). 이와 비슷

한 상황이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하고 있고, 또 잠재적으로는 바로 Mercosur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위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기업과 사회부문에 제공하는 기회들은 지역통합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역학을 공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혜택이란 동 지역의 생산적인 상호보완성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게 중요한 중국과의 교역 과잉이 민족적·발전중심주의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분류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부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Godio, 2006). 브라질의 경우, 무역수지가 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첨단기술 부문(예, 브라질 항공 공사 Embraer의 위성발사)에서든 1차 산품 부문(예, 브라질 국영 제철소 Vale do Rio Doce)에서든 전략적인 방향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 브라질의 통합정책 관점에서 남미에 새로운 힘의 출현이 갖는 의미

자체의 특유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룰라 정부 그 자체가 통합과 관련하여 보다 큰 개방을 의미할 수도 있다. 룰라 정부를 지탱하는 정당들은 -특히, 노동자당- 전통적으로 보다 큰 개방에 호의적이다. 지역통합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 특히 기능주의(Haas, 1964)는 동기부여가 가치들의 동질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비록 높은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Mercosur와 지역 통합에 대한 브라질의 관심은 2000년대 동블록의 재활성화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시 말하면, 가치도 충분

하지 않았거니와 이해타산 역시 앞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톨라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 방문한 나라는 아르헨티나였다. 그의 뇌리 속에는 Mercosur의 강화와 전략적 동맹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다. 2002년 11월 당시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던 에두아르도 두알데와의 첫 만남에서, 1986년 브라질의 사르네이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알폰신 대통령이 서명한, 경제·무역 통합 프로그램(PICE)의 재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양국 간의 공동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하지만 2003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당선되자, 비록 Mercosur에 호의적인 정책과 연설 등으로 톨라와의 이데올로기적 호환성을 나타냈지만, 두 정상에 의해 실제로 취해진 대책들은 미흡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상의 무기 연기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던 2005년 마르델플라타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에서처럼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공통된 입장이 표출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의견 조정이나 합의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은 전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역 심화와 특수 상황에서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발전에 대한 초기의 추진력은 이미 희석되어진 듯 보인다. 생산체인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미주개발은행(BID)과 브라질의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의 금융지원으로 국영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노력은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진전은 현지 화폐 지불 시스템(SML) 창설을 위한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10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할 참이었다. 하지만 국제 금융위기로 폐소화와 헤알화의 평가절하가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동 시스템의 구체화에 대한 의심이 즉각 개선되었다. 이미 본 것처럼, 여러 이유로 제 3국가들에 대한 보호주의 논리가 부상하였으며, 역

내 자유화에 대한 유보 움직임도 거론되었다.

이르스트(Hirst, 2006)에 따르면, 현재 남미에 대한 브라질의 우선 정책이 아르헨티나와의 전략적인 동맹에 대한 과거의 최우선 정책을 대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략적 동맹을 가로막는 경제적·구조적 요인들은 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유사성을 뛰어넘는 중요성을 가지곤 한다. 2008년 2월 룰라의 아르헨티나 방문 시에 토의된 바 있는 테마들로서, 강력한 통합과 민감한 기술들의 개발을 위한 관심의 배가는 심화된 통합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국내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3년 이래 브라질은 Mercosur에 구조적인 불균형들이 존재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여타 회원국들에게 카운터파트를 제공하려는 시도들은 느슨하였다. Burges(2005)의 해석과는 달리 그 느슨함은 무엇보다도 각국이 안고 있는 어려움에 기인하므로, 통합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이기적인 시각으로 설명되진 않는다. 아순시온 조약이 맺어진 지 15년 후인 2006년에 이르러서야 1억 달러 규모의 구조수렴기금(Fundo de Convergência Estrutural)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금은 2008년 말에 2억 2,5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기금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등 역내 소국들의 통합에 불리한 결과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룰라 정부 내에는 Mercosur의 통합 형식이 낳은 한계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우려는 구조적인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에 불충분한 것 같다.

Mercosur는 모든 회원국들의 기대에 일신하고 부응해야하는 도전에 직

면해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재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불균형한 점들을 분명히 포착하여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도적 강화와, 역내에서 취한 결정과 합의사항들이 각각의 회원국 내에서 이행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고 있는 Mercosur의 새로운 이 단계는 제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눈높이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 보다 진전된 Mercosur는 분명 보다 진전된 제도를 의미합니다(Lula da Silva, 2006).

우리가 보듯이 브라질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시각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항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가의 행동에서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리마(2006)가 지적했듯이, 남미의 좌파 정권 도래가 반드시 그 정권이 원하는 노선의 자동적 수립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정권의 행동이 지역 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좋은 예가 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가 취한 탄화수소의 국유화였으며, 브라질의 국영석유공사 페트로브라스(Petrobrás)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어떤 협력관계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슷한 세계관과 가치관이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세계 핵심 권력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주의적 개념들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1940~50년대에 있었던 주석(朱錫) 경우처럼 오늘날에는 가스가 가난하면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해방을 보장하기 위해 보존되어야할 상징적인 가치로 비춰지고 있다. 이와 똑같은 일이 파라과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까네세(Canese, 2008: 25)에 따르면, 정부는 ‘수력발전 국민 주권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경제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비슷한 점들이 문호를 열고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는 브라질의 인식은, 지역 정책과 대외 정책이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그 이해관계가 국가의 고유한 것(Deutsch, 1978)이고 지역통합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 어떤 조건에서 그 이해관계들이 지역통합을 주장하는 행동과 교감을 이룰 수 있을지 이론이 말해줄 것이다.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통합으로 함유하는 이해관계들의 spill over 현상, 즉 이해관계들이 붓물을 이루는 현상을 창출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 반대의 경우 공동이 아닌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다반사가 될 것이다. 리마(2006)는 현 브라질의 대외 정책이 낳은 주요 업적 가운데 하나, 즉 아르헨티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일궈낸 브라질 국내 정치세력들의 연합이 부식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의 깃발을 든 혁신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초기에 형성된 기대는 Mercosur와 남미의 통합 진전 시도에 새로운 국면의 전개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올리베이라와 오누키(Oliveira & Onuki, 2006)가 주장했듯이, 좌파의 정치적인 입장과 지역 통합에 대한 지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몇몇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나 자세를 고려할 경우, 나르딘(Nardin)이 말하는 목적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가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발전을 위한 길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들과 맞물려 있는 지역 통합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통합의 힘겨운 해결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나오면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전개된 국제 정치·경제 체계의 변화는 브라질의 대외정책, 즉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기본 개념인 보편주의 강화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제적인 의제의 주요 테마들을 논의하는 곳에서 브라질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특별한 단계로 다극주의(多極主義)와 국제기구들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똑같은 방식으로, 브라질은 국제체제의 구축에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국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의 중요성, 특히 중국으로 대변되는 아시아의 새롭고도 엄청난 역할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국제체제의 불확실한 상황과 불규칙성은 변화에 융통성이 있는 국제사회 진입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브라질의 대(對) Mercosur 정책구성면에서, 특히 통합의 제도적인 원칙으로, 정부 간 협력 우선주의를 옹호하는 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관점은 최근 들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의 엘리트 계층과 정부의 인식으로 볼 때, 그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 다극주의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 사회 속에서도 브라질의 변함없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자국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 지역통합을 활용하기 위해 Mercosur 내에 최소한의 결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흔히 대내외적인 압력이 증가한 결과로 여겨지면서도 항상 불충분한 것으로 비춰지는 회원국들에게 정확한 혜택 제공은 그러한 결속의 관리를 결정해온 중요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브라질의 입장이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통합의 필요성이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감당할 브라질의 능력보다도 훨씬 큰 상황이다(Mariano, 2007). 즉, 브라질에게 지불결제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이다(Mattli, 1999).

우리가 주장하고 있듯이, 브라질과 Mercosur의 입장에서 볼 때, 통합의 공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심각한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그 변화들은 경제 구조를 포함하여, 무역·투자·기술의 이동, 그리고 정치·군사·문화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2000년대 브라질 사회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지역통합 계획, 특히 아르헨티나와 Mercosur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중첩되며 충돌했던 이 목적들 -자율성과 보편주의가 내포하는 이해관계와 개념들, 그리고 일방주의를 종결시키려는 노력과 다극주의 강화 등-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에는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대충 엇비슷한 지지 기반과 일반적인 정치적 유사성을 지닌 소위 좌파로 간주되는 정부들이 출현했지만, 지역 통합, 특히 Mercosur의 통합과정에 더 큰 추진력은 엇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그와는 정반대로 통합에서 빠지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경우마다 매우 중요한 분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볼리비아의 가스, 이따이부 수력발전소, Botnia, Odebrech-Ecuador), 이것들이 통합의 핵심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회원국들에서 통합에 반대되는 이해관계와 입장들이 개진될 때, 이것들은 통합의 과정을 확장시키든가 아니면 재적응시키려는 정책들의 제안 형태가 아니라, 저항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국가적인 위기들이 통합의 과정에서 상호 의견 조정의 기회를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무기력과 상호 보완 노력의 축소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1998년 이래 심화된 통합을 찬성하는 그룹이 무기력해지면서 다른 그룹들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 그룹들은 비록 통합에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세계 체제가 변하는 정점의 시기에 통합으로 응집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통합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닌 개념들과 계획들, 그리고 이해관계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통합이 보다 심화될수록 브라질의 주권과 자율성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솔직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브라질 국가와 사회의 행동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말았다. 거꾸로, 지역 통합이 외부 세계 속에서의 브라질 입장 자체를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결국, 브라질의 국제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보편주의에 반대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대안이 사라진 셈이다. 우리는, 그 통합에 브라질 엘리트들이 부여하는 역할 등과 같이, 자율성과 보편주의라는 브라질의 원칙들이 본질적인 요소가 정부 간의 관세 통합 수준에 국한된, 그리고 지역 블록의 확장과 브라질의 염원에 부합하는 관세통합 수준으로 한정된 남미 남부 지역의 통합 과정 유지로 집중되는 것을 보았다. 1991년 이래 브라질의 엘리트 계층과 국가가 Mercosur라는 테마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면, 브라질에게 남미의 의미가 커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통합 목적의 지형 확대는 브라질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자기 인식과 직결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역내통합은 2008년 이래 초유의 심각한 경제·금융위기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체제에서 브라질이 취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은 덜 취약한 개발 모델의 창출 가능성을 투사해보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현재의 국제무대에서 브라질을 포함하여 남미 남부, 그리고 남미 전체에게 국제적으로 더 많은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 본 글을 통해, 우리는 현재까지 브라질이 다양한 길을 추구하면서 다자주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방주의를 약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믿는다.

(박원복 번역)

## 참고문헌

- Almeida, Paulo Roberto de, *O Mercosur: no Contexto Regional e Internacional*, São Paulo: Edições Aduaneiras, 1993.
- Albuquerque, José A. G., "O Governo Lula em Face dos Desafios Sistêmicos de uma Ordem Internacional em Transição - 2003-2006," *Política Externa*, Ed. Paz e Terra, Vol. 16, Nº 1, 2007.
- Araújo Castro, João A. de, *Araújo Castro*, Brasília: Editora UnB, 1982.
- Ayerbe, Luis Fernando, *Estados Unidos e América Latina: a construção da Hegemonia*, São Paulo: Editora da UNESP, 2002.
- Barbosa, Rubens A. and Luis F. Panelli Cesar, "O Brasil como 'Global Trader'," in Gelson Fonseca Jr. and Sérgio Henrique Nabuco de Castro (orgs.), *Temas de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II*, São Paulo: Paz e Terra, Vol. 1, 1994.
- Barbosa, Rubens A., "O Lugar do Brasil no Mundo," *Política Externa*, Ed. Paz e Terra, Vol. 5, Nº 2, 1996.
- Burges, Sean W., "Bounded by the Reality of Trade: Practical Limits to a South American Region,"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Routledge, Vol. 18, Nº 3, October 2005.
- Camargo, Sonia, "A Integração do Cone Sul (1960-1990)," in José Augusto Guilhon Albuquerque (org.), *Sessenta Anos de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1930-1990: O desafio geoestratégico)*, São Paulo: Annablume, NUPRI/USP, 2000.
- Canese, Ricardo, "A Recuperação da Soberania Hidrelétrica do Paraguai," in Gustavo Codas (org.), *O Direito do PParaguai a Soberania*, São Paulo: Editora Expressão Popular, 2008.
- Cepal(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norama de la Inserción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0-2001*, Santiago: Cepal, 2003.
- Cervo, Amado Luiz, "A Ação Internacional do Brasil em um Mundo em Transformação: Conceitos, Objetivos e Resultados (1990-2005)," in Henrique Altemani and Antônio Carlos Lessa, *Relações Internacionais do Brasil: Temas*

- e Agendas*, São Paulo: Editora Saraiva, 2006.
- Clarín, "Cumbre de Ministros del Mercosur para Adoptar Medidas contra la Crisis," 27/10/2008.
- Clarín, "Lula, en exclusiva con Clarín: 'no Existe Ninguna Hipotesis de que Brasil se Juegue Solo'," 7/9/2008.
- Deutsch, Karl, *Análise das Relações Internacionais*, Brasília: Editora UnB, 1978.
- Fonseca, Roberto Giannetti da and Mario Marconini, "Desempenho e Política Comercial: Inserção Internacional e o Comércio Exterior Brasileiro," *Revista Brasileira de Comércio Exterior*, Rio de Janeiro, Nº 87, 2006.
- Fonseca Júnior, Gelson, *A Legitimidade e Outras Questões Internacionais*, São Paulo: Paz e Terra, 1998.
- Gazeta Mercantil, "Mercosur Responde à Crise Defendendo Maior Integração," 28/10/2008.
- Gazeta Mercantil, "Brasil não Perdeu Prestígio. Ele nunca Foi Tão Alto," 19/10/2006.
- Gazeta Mercantil, "Brasil Volta da Reunião com Trunfos nas Mãos," 17/11/2008.
- Gazeta Mercantil, "Crise Põe o Brasil na Mira da China," 21/11/2008.
- Godio, Julio, *El Tiempo de Kirchner: el Devenir de una Revolución desde Arriba*, Buenos Aires: Ediciones Letra Grifa, 2006.
- Guimarães, Samuel P., *Desafios Brasileiros na Era dos Gigantes*, Rio de Janeiro: Contraponto, 2006.
- Haas, Ernest B., *Beyond the Natio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 Hirst, Monica, "Los Desafios de la Política Sudamericana de Brasil," *Nueva Sociedad*, Nº 205, setembro, 2006.
- Lafer, Celso, *A Identidade Internacional do Brasil e a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Passado, Presente e Futuro*, São Paulo: Perspectiva, 2004.
- Leon-Manriquez, José Luís, "China-América Latina: una Relación Económica Diferenciada," *Nueva Sociedad*, Nº 203, maio/junho 2006.
- Lima, Maria Regina S. D., "Decisões e Indecisões: Um Balanço da Política Externa no Primeiro Governo do Presidente Lula," *Carta Capital*, 27/12/2006,

Disponível em: <http://observatorio.iuperj.br>

- Lula da Silva, Luiz Inácio, "Discurso do Presidente da República, Luiz Inácio Lula da Silva, por Ocasão do Encerramento da XXX Cúpula dos Chefes de Estado do Mercosur," Córdoba, julho de 2006. Disponível em <http://www.Mercosur.gov.br/discurso> acesso em 2/12/2006.
- Mariano, Marcelo P., *A Estrutura Institucional do Mercosur*, São Paulo: Editora Aduaneiras, 2000.
- Mariano, Marcelo P., "A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o Itamaraty e o Mercosur," Tese de Doutorado. Programa de Pós-Graduação em Sociologia, Faculdade de Ciências e Letras - UNESP - Araraquara - SP, 2007.
- Mattli, Walter,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ello, Flávia de Campos, "Regionalismo e Inserção Internacional: Continuidade e Transformação da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nos Anos 90," Tese de Doutorado. Departamento de Ciência Política da Faculdade de Filosofia, Letras e Ciências Humanas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 2000.
- 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 "Brasil, Argentina, Uruguai e Paraguai criam Mercado Comum do Sul (Mercosur)," Resenha de Política Exterior do Brasil, Brasília, Nº 68, 1991, (Nota à imprensa de 26 de março de 1991).
- Moreira, Marcilio Marques, "O Brasil no Contexto Internacional do Final do Século XX," Lua Nova, São Paulo: Cedec, Nº 18, 1989.
- Narlikar, Amrita.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Coalitions in the GATT and WTO*, Londres: Routledge, 2003.
- Nardin, Terry, *Lei, Moralidade e as Relações entre os Estados*, Rio de Janeiro: Forense-Universitaria, 1987.
- Oliveira, Amâncio J. and Janina Onuki, "Eleições, Política Externa e Integração Regional," *Revista de Sociologia e Política*, Vol. 27, 2006.
- Onuki, Janina, "O Governo e o Empresariado Argentino: a Percepção Política do Mercosur," Dissertação de Mestrado. Departamento de Ciência Política da Faculdade de Filosofia, Letras e Ciências Humanas da Universidade de São

- Paulo, 1996.
- Pinheiro, Leticia,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1889-2002*, Rio de Janeiro: Jorge Zahar, 2004.
- Prates, Daniela M., "A Inserção Externa da Economia Brasileira no Governo Lula," *Política Econômica em Foco*, São Paulo, Nº 7, abril 2006.
- UNESP, UNICAMP, PUC/SP, CEDEC, "Estados Unidos: Impactos de suas Políticas para a Reconfiguração do Sistema Internacional," Projeto de Pesquisa, 2006.
- Vadell, Javier, "América do Sul recebe o dragão asiático," Paper, San Francisco: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ISA), 2008.
- Valor Econômico, 16/11/2004. «Empresários discutem o Mercosur».
- Velasco e Cruz, Sebastião C., *Trajétórias: Capitalismo Neoliberal e Reformas Econômicas nos Países da Periferia*, São Paulo: Editora da UNESP, 2007.
- Waltz, Kenneth N.,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º 1, 2000.